렌즈 속의 한국, 1~3세대 한국작가 기획전

인민화보

A+ A-

2019-03-06 인민화보

1 월 13 일 , 한국 서울한미사진미술관 , 송은아트센터 , 쓰리 섀도 포토그라피 아트센터가 공동 기획한 사진전 '그리팅 프롬 사우스 코리아'가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사진/ 쓰리 섀도 포토그라피 아트센터 제공

사진 작품은 생활을 기록할 뿐 아니라 한 시대의 낙인이다. 시대별 사진가의 작품에서 그 시대 특유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사진이 걸린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역사의 흔적과 무게가 담긴 사진을 보는 것은 역사를 돌아보고 시대의 변천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최근 베이징 쓰리 섀도 포토그라피 아트센터(Three Shadows Photography Art Centre)에서 개최된 <그리팅 프롬 사우스 코리아(Greetings from South Korea, 韓國影汇)> 전시회가 중국 관객에게 한국 사진가의 작품을 통해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1월 13일, 한국 서울한미사진미술관, 송은아트센터, 쓰리 섀도 포토그라피 아트센터가 공동 기획한 사진전 '그리팅 프롬 사우스 코리아'가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3세대에 걸친 사진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는 중·한 수교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서 세대별 한국 사진작가 작품들이 전시된 사진전이었다.

이번 전시회는 <임응식, 렌즈로 본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연 한국의 사진가> <같은 계절, 다른 기억> 3부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3 세대에 걸친 한국 사진의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준다. 20세기 중반 한국 사회의 변화를 포착한 다큐멘터리 작품도 전시됐다. 2차대전 이후 태어나 서양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한국 인문과 미학 철학의 새로운 탐구를 시도한 중년 사진작가의 작품과 당대 언어 환경에서 영상을 통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 젊은 사진작가의 작품도 있다.

잡지 M

2019년 2월호

베스트 추천 뉴스

- 시진핑 주석, 문재인 한국 ...
- 데이터로 보는 2013-2017년...
- 中 디지털경제 규모 전세계 ...
- 고은과 함께 보는 중국-라오...
- 시진핑 등 19기 중앙정치국 ...

중한교류 M

디지털 기술로 열.

11월 3일에서 5일 국 칭화대학교 글로벌 속가능발전연구원(칭 대SDG연구원)과 한국 단법인 여시재(與時齋

읽기 원문

중·한 경제협력의

10월 16일 한국 ㅅ 금개발청이 주최한 '시 금 투자환경설명회'가 이징(北京)에서 열렸다 한국의 이철우 새만금

읽기 원문

심층보도 M

중국 2월 제조업PMI 49.2%

2019년 中 양회 관심 키워드: 바른 기풍과 반부패, 의...

'아름다운 중국, 아름다운 파나마' 사진전 성료

'아름다운 중국, 아름다운 파푸아뉴기니'사진전 성료

<시진핑 치국리정을 말하다> 독자회, 스페인 마드리...

<시진핑 치국리정을 말하다> 독자회, 포르투갈 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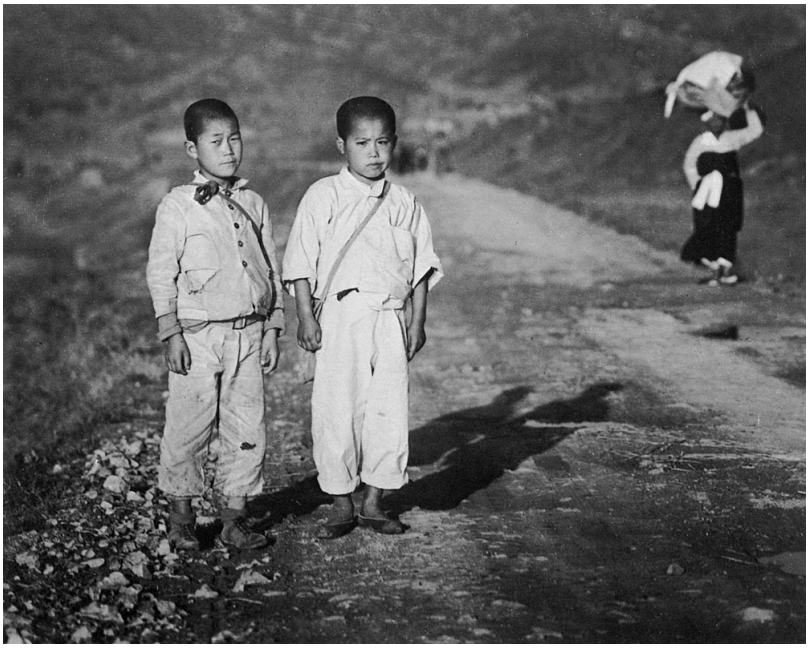
시진핑 저작 <빈곤탈출>·<지강신어>

역사적 새 단계로 진입하는 중한 관계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 구축이라는 도전

"단기하방 극복하고 안정적 호조세 보일 것"

개혁으로 정치발전 추진하는 중국



임응식 , < 소년시절 (부산)>, 1946

임응식은 한국 사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일본 식민통치 시기 임응식은 아마추어 사진사로 출발해 회화주의 사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전쟁 종군기자로 활동하면서 사실을 기록하는 현실주의 사진에 흥미를 느끼고 '생활 중의 사진'이라는 스타일을 시도했다. 이번 <그리팅 프롬 사우스 코리아> 전시의 1부 <임응식, 렌즈로 본 역사>에서는 임응식의 50년 사진 인생의 작품을 전시했다. 1930년대 사진의 길을 시작했던 때부터 50년대 초 전쟁 상황에서의 작품까지, 또한 전후 객관적으로 사회 현실을 담은 작품 등이 전시됐다.

2부 <새로운 시대를 연 한국의 사진가>에서는 전후 출생한 유명 사진작가 5명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 불안한 시대를 경험했고, 동시에 해외유학으로 새로운 철학을 한국에 가지고 온 1세대다. 김중만, 구본창, 이갑철, 민병헌, 박기호 등 전후 세대 한국 사진작가의 작품이 전시됐다. 굴곡진 역사를 경험한 그들은 한국인이라는 의미와 생각을 탐구한 사진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3부에서는 <같은 계절, 다른 기억>이라는 표제와 컨셉트로 유영진, 김승구, 하태범, 정희승, 백정기 등 당대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이들은 렌즈를 통해 시간, 계절, 인성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현재 삶에 대한 개인의 시각과 해석을 표현했다.

이번 사진전의 전시 디렉터를 맡은 석재현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리팅 프롬 사우스 코리아> 전시회에 관한 보다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박기호 , < 통일로 >, 2013

월간 중국: <그리팅 프롬 사우스 코리아>의 기획 동기를 소개해 주세요

석재현: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한국과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교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예술 영역에 있어서는 그 기회가 부족함을 전시 기획을 하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 개최된 'Jimei x Arles 사진축제' 주빈국 전시 초대와 이번 중국 최고의 사진 전문 뮤지엄인 베이징 쓰리 샤도 포토그라피 아트센터의 초대로 한국 사진을 선보일 기회를 가지게 되어 반가움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한국 사진을 제대로 선보일까라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Jimei x Arles 사진축제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측 서울한미사진미술관, 송은아트센터와 베이징 쓰리 샤도 포토그라피 아트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 사진의 역사와 현대 사진을 아우르는 전시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팅 프롬 사우스 코리아는 한국 사진의 시대적 흐름을 관통할 수 있는 3세대의 작품들로 기획과 구성을 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임응식 작가의 작품을 시작으로, 1980년대 후반 처음으로 나타난 컨템퍼러리 사진의 개념적 작업을 지나, 그 다음 세대인 현재 한국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월간 중국: <그리팅 프롬 사우스 코리아>의 전시는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무엇입니까

석재현: 한국 사진의 시대적 흐름을 관통할 수 있는 3세대의 작품들로 기획과 구성을 한 이번 전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길 드리자면, <임응식, 렌즈로 본 역사>는 한국 사회가 일제 식민지와 이어진 한국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어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은 전세계 최하위의 경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임응식 선생님을 비롯한 몇 분의 한국 사진가들은 역사적 상황의 기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당시의 시대적 문제, 의식, 상황들을 사진 매체를 이용하여 기록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는 당시의 미술사조인 픽토리얼리즘 풍의 '아름다운 것이 예술이다' 와는 사뭇 다른 시대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 한국의 사진가> 전시에서 소개되는 작가들은 1980년대 초 한국에서 사진 교육이 체계를 잡아가는 시점에 활동하던 사진가들입니다. 첫 해외유학을 떠났던 유학파 1세대들이 80년대 후반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사진의 형식과 개념사진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부 사진가들은 급변하는 사회적 발전에 의해 사라지는 한국의 전통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식적 표현에 주관적 해석이 담긴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진가들의 작품 활동은 사진계 뿐만 아니라 시각예술 전반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한 사진가들은 순수예술 뿐만 아니라 광고 상업사진과 다큐멘터리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넓혔습니다.

이러한 선배들의 영향으로 형식적으로는 더욱 자유롭고 다양하게 확장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사회보다는 개인의 내러티브에 충실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젊은 세대 사진가들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것이 <같은 계절, 다른 기억> 전시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있더라도 작가 개개인의 시각과 해석이 다양한 견지에서 무궁무진하게 퍼져갈 수 있음을 표현함으로 사진예술의 확장 과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승구 , < 수영장 >, 2016

월간 중국: 중국과 한국 사진작가들의 작품은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이번 전시가 중국에서 열렸는데 중국 관람객들의 관람 습관에 맞춰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석재현: 전시기획자로서 2000년 중반부터의 중국 작품들을 보면서 놀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륙'이라는 말이 실감날 만큼 내용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좀처럼 시도할 수 없는 스케일까지 감탄이 절로 나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중국 관람객들에게 한국 사진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 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을 해봤습니다. 11명 작가의 작품들이 담고 있는 내용의 다양성과 최종 결과물의 스케일은 충분히 중국 관람객들에게 매력을 선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시 참여 작가 중 이갑철, 박기호의 작품들 중 한 점씩은 특별히 쓰리 샤도 뮤지엄의 공간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5m 사이즈의 대형 출력물로 전시되어 있어 한국 사진이 전하는 새로운 묘미를 만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월간 중국: 한국의 사진전이 중국에 진출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최근 양국의 사진 교류는 어떤가요? 향후 어떠한 추세를 보일 것 같습니까?

석재현: 한국의 사진작가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전을 통해 중국과 사진 교류를 한 것은 1990년대 중후반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의 '핑야오(平遙) 사진축제'에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이 일부 소개되기 시작했고 저 역시 2005년에 그곳에 참여작가로 작품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기획자로서 중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 윈난(雲南)성 다리(大理)에서 열리는 '다리 국제포토페스티벌(Dali Interantional Photo Festival)'에 참여하면서부터 입니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매회 5명 정도의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기획전시를 만들어오고 있는데, 참여 작가 중 이갑철, 이상엽, 이정록, 박종우 등 4명의 한국 사진가들이 우수작가로 선정되는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2015년과 2017년에는 개인적으로 우수기획자로 연속 선정되어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또한 작년 8월에는 한국 담양에서 개최된 국제사진축제에 중국 작가 3명과 바오 쿤(다리 국제포토페스티벌 기획자)을 초대하여 중국 사진가들의 작품을 한국에 소개하는 기획전시를 열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의 국제사진제를 통해 양국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많아지리라 생각하며, 중국과 한국간에 사진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 차오멍웨(曹夢玥) 사진/ 쓰리 섀도 포토그라피 아트센터 제공

구본창, <숨01>, 1995

회사소개 | 이용약관 | 제휴제안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오시는 길